

중학교 가정 새 교과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임 공 희

교육부 자연과학 편수관실

지난 '92년 6월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로 중학교 교육 과정이 고시되어 1995년 3월 1일 신입생 부터 시행하게 되어 이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이 이미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6차 교육 과정의 시행에서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중학교 남녀 모든 학생이 가정과를 필수로 이수하게 되고, 교과서는 2종으로 되어 8종류의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하여 이제 곧 선을 뵈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중학교 가정 교과서가 1종 도서였기 때문에 가정과 기술·가정 중 어느 교과를 이수시킬 것인가만 학교에서 결정이 되면 교과서는 어느 것을 택할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종류의 교과서가 나오면 그 중 어느 교과서를 택해서 어떻게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현안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서가 나오기 까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떠한 점에 유의하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우리가 교과서를 어떻게 선택하여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데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교육 내용과 교과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부가 법률(교육법 제155조)에 의거해서 고시한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교육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 교육 과정에 의거해서 편찬 보급된 교과서에 나타난 교육내용으로 말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교육 내용은 추상적, 일반적, 거시적 수준의 요강이고 교과서에 나타난 교육 내

용은 교육 과정의 내용 보다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이고 상세한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이 우리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전 같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가르쳐 왔다.

이와같이 학교 교육에서 교육 내용을 교과서에 규정된 교육 내용만으로 국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 과정에 규정된 교육 내용을 그 지역, 그 학교, 그 학생에 알맞는 상태화된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 적정화하고, 그러한 교육 내용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자료 중에서 교과서가 하나의 기본적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즉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과 '교육 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서 어느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 중심 학교 교육'을 택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는 수업' '직접 체험, 지식, 기능, 가치관 등의 조화로운 발달을 실현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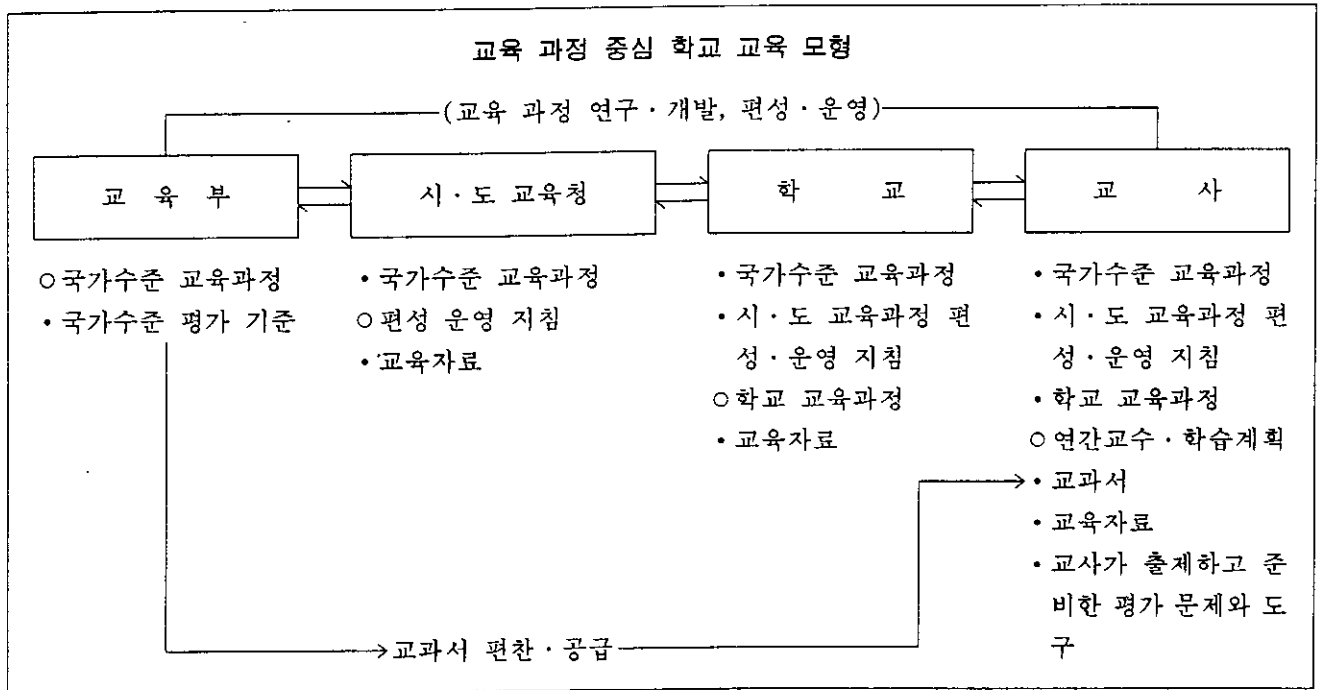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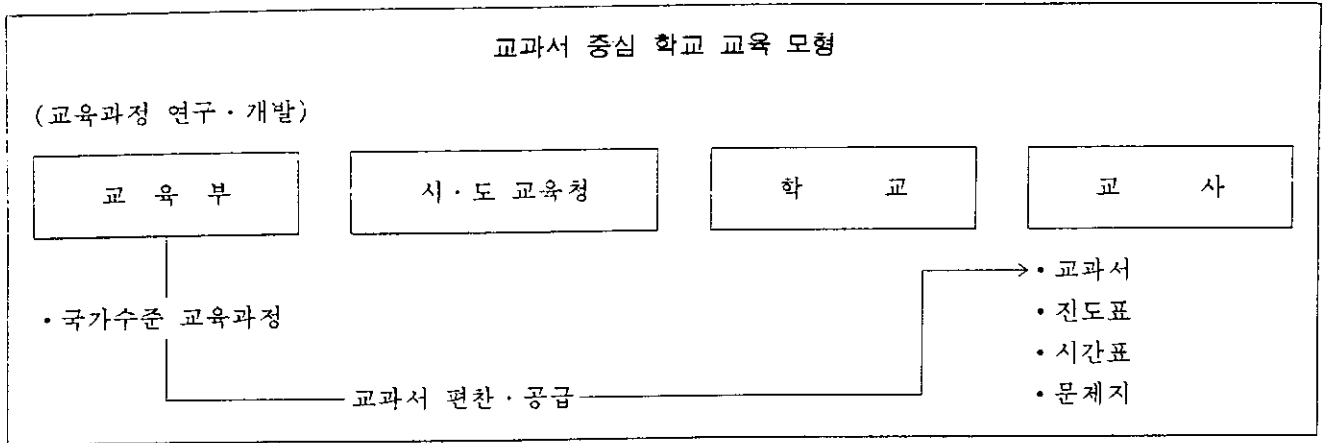
(이 모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2. 교육 과정은 교과서의 근거

이번에 나오는 중학교 가정과 새 교과서는 제6차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다.

가. 6차 교육 과정의 개정 방향과 중점

제6차 교육 과정은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개정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안목에서의 개정중점은 다음의 4가지로 말할 수 있다.

- ① 교육 과정 결정의 분권화
- 교육내용의 확실성·경직성·폐쇄성을 해소하고 자율 재량을 확대한다.
- ② 교육 과정 구조의 다양화
- 다양한 이수 과정을 설치하고 필수 과목을 선정 축소하며, 선택 과목을 확대하고 시대적 요구를 교육 내용에 반영한다.
- ③ 교육 과정 내용의 적정화
-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이수 내용의 성차별을 철폐한다.

- ④ 교육 과정 운영의 효율화
- 학생의 적성·능력·진로를 중시하고 교육 방법 및 평가의 개선을 도모한다.

나. 가정과 교육 과정 개정의 중점

제 6 차 가정과 교육 과정의 개정은 2000년대를 바라보며,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방향 테두리안에서 사회 상황 및 가정 생활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정과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정과 교육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다.

가정과 교육 과정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족원

의 역할 변화, 가정과 사회와의 상호 의존성 증가와 이에 따른 가정 생활 기능과 내용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가정'을 남녀 공통 이수하는 교과로 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중학교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개정 중점을 주안으로 개정하였다.

① 시대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 개인의 필요와 국가 사회의 요구 변화, 가정학의 학문적 발전과 동향, 실제적인 유용성이 강조되는 가정과 교육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이해, 가정 자원의 관리, 구매와 소비생활 등에 관한 내용은 비중이 커지고, 의복 구성에 관한 내용은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주거 공간에 관한 내용에서는 주거 공간의 계획이나 설비 내용이 삭제되고 주거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실내 환경의 조성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② 실제적인 유용성, 학습 결과의 전이성과 실천성 등에 중점을 두고, 내용 영역과 주제를 학생의 실생활 문제 중심으로 선정하고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하여 이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가 통합적, 실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적용 중심으로 조직하였다.

예를 들어 의복 재료에 관한 내용은 기성복의 품질 표시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용도와 취급의 편의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섬유 혼용률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구조로 바꾸었고, 영양소에 관한 내용은 영양소를 종류별로 이해하기보다는, 건강 유지의 측면에서 영양소의 기능을 이해하고 함유 식품을 알며, 기초 식품군을 중심으로 알맞은 섭취량을 알게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③ 생활 교과, 실천 교과로서의 교과 특성을 중시하여, 모든 내용을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하여 가정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가정과 신·구 교육 과정 내용의 비교 자료 별첨)

3. 제 6 차 교육과정에 따른 가정과 교과서

가. 기대하는 가정과 교과서의 편찬 방향

제 6 차 교육 과정에서 기대하는 가정과 교육의 기본 방향은 가정과 교육 과정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교육 과정 개정의 취지와 개정 중점, 가정

과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에 이를 구체화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가정과 교과서는, 단원 또는 주제의 설정, 내용의 전개 등에서 각각의 전공 서적을 축소해 놓은 듯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의 압축, 요약해 놓은 교사의 지도 자료적인 것이었으며, 일상 생활에 유용한 실천적인 능력과 태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과 성격에 반하여,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념, 원리, 방법, 가치 등에 관한 단순한 지식을 주는 수준의 교과서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제 6 차 교육 과정에 따른 가정과 새 교과서의 방향은 종래의 가정과 교육 및 교과서의 문제점에 유의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할 점의 예로 제시할 수 있다.

① 실생활에 유용하고, 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서

내용의 선정에서, 남녀 공통 이수와 학생의 발달 단계, 국민 학교 실과와의 연계성, 중학교 타교과와의 관련성, 연간 수업 시수(1학년 68시간, 2, 3학년 각 34시간의 연간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실생활에의 유용성, 학습주제 및 소재의 친밀성, 완전 학습의 가능성, 전이성 등을 중시하여,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 유용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② 단원 및 주제의 설정, 표현 등이 현실감 있고 참신한 교과서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은 가르칠 것을 표현하는 기호 수준의 것으로,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는 목표 달성의 효율성과 학습 동기 유발 등을 고려하여 이 '내용'의 조합과 단원 구성, 단원의 크기, 특히 단원의 표현 등을 현실감 있고 참신하게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③ 적용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한 교과서

가정과 교과서는, 교과 성격과 목표를 고려할 때, 학문 중심보다는 적용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적, 실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체험 학습을 하도록 내용을 전개한 교과서

생활 교과, 실천 교과 등의 교과 성격으로 볼 때, 대부분의 가정과 내용은 실험·실습, 조사, 토의,

사례 연구, 과제 학습 등 체험 활동을 통한 학습이 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적절한 체험 학습의 방법은 여건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교과서 집필에서는 적절한 체험 활동의 예를 제시 또는 암시하거나 구조적으로 그 과정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에 관한 내용 전개는 과학 또는 기술 시간에 학습한 원리를 관련 지식으로 하여 이의 효율적인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재질 또는 깊이 등이 다른 몇 종류의 그릇을 가지고 실험을 하여, 열효율이 큰 그릇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⑤ 자율 학습할 수 있는 개별 학습 내용이 추가된 교과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은(특히 남녀 공통 이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자율 학습할 수 있도록 보충, 심화 학습 내용을 추가 제시하여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그 안내를 명시하여 일제 수업의 양은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⑥ 자율 학습이 가능한 학습 자료로서의 교과서

학생의 자율 학습이 가능한 학습 자료가 되어야 한다. 문장의 길이나 표현, 용어 및 어휘 등을 학생 수준에 맞게, 그리고 또박 또박하게 조직적으로 제시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하여 제시하며, 내용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사진, 삽화, 통계, 자료, 기타 자료(예: 관련 지식, 읽을 거리)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선수 학습(실과) 내용이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특히 만들기 내용에는 작업 단계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사진 또는 삽화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 가정과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제 6차 교육 과정에 따른 가정과 교과서 편찬 방향에 맞는 교과서 집필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가정과 2종 교과서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여 집필자들이 교과서 집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가정과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은 교육 과정 개정의 취지와 개정 중점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가정과 교육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되는 교과서를 만들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용의 선정', '내용의 조직', '내용의 수준', '내용의 분량', '내용의 표현', '단원의 전개',

'일반 사항', '영역별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관하여 집필상 유의할 점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자료 별첨).

4. 새 교과서 활용과 학습 지도

가. 목표 지향의 학습 지도

학습 지도를 할 때에는 교과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역별 목표를 상세화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알맞는 수준으로 목표를 명료화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가 목표의 구현을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목표

- 자신과 가정 생활의 이해
- 가정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기능 습득, 일상 생활에 실천적으로 활용
- 가정 생활에 자주적, 협동적으로 참여

그리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는 목표 구현을 잘 하였는가 하는 평가(ASSESSMENT)가 따라야 할 것이다. "ASSESS(평가하다)"의 어원은 'ASSIDERE'인데 옆에 앉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아마도 교사가 학생들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옆에 앉아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할까를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은 아닐까요.

나. 새 교과서의 활용

이제 8종의 교과서가 나오면 학생, 학교, 지역 사회의 요구와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에 적합한 교과서는 그 중 어느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교과서의 여러 관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구현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학습 자료 중의 하나로서, 교육 과정과 그것이 실제로 전개되고 실현되는 교수·학습의 과정을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는 실제로 교육 과정 구현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교과서가 유일한 학습 자료이거나 가장 좋

은 자료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제 교과서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살펴 보도록 한다.

① 교과서를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한다.

우선은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수업 전개 방식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 때에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을 어느 정도 변형시킬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교과서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를 하나의 지침으로 사용하면서 문제 해결이나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 자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사전류, 관련 분야의 전문지 및 학술지, 신문 기사, 보충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가 기본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② 채택하지 않은 다른 교과서를 적절히 활용한다.

학생들은 한 종류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교과서에서 다른 어떤 영역의 내용이 학습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때 이를 교사가 활용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③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교과서 내용만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교과서에는 없지만 의미있는 학습 내용도 수업 중에 다루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 때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오직 교과서에만 의존했던 때와는 달리 교육 목적과 학습 목표를 의미있게 달성할 수 있는 다른 교육 자료, 교육 매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학습하는 자료의 하나가 교과서라는 생각을 가진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 현장에서 교사의 융통성과 창의성이 크게 요구될 것이다.

④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획일적인 일제 학습에서 한걸음 전진하여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러한 학습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학습 자료로서 교과서를 활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능력, 개성, 관심, 흥미,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필요와 능력에 맞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 자율 학습 내용을 다양화하

고 학습의 개별화가 가능한 수업 방법을 연구·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에 개별화 수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 실습 과제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동기 유발, 학습 안내 등을 하고 학생들이 개별 학습한 과제에 대한 후 처리를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⑤ 자율 학습·체험 학습의 자료로 활용한다.

지식 주입·전달 중심의 학습에서 활동 중심, 문제 해결 중심, 적용 중심 학습에 도움이 되고 그런 학습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자료로 교과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사가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으로 수업을 하기 보다 학생 스스로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스스로 활동해 볼 기회,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하고 해결해 보는 기회와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주면서 학습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⑥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활용한다.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같은 비중으로 교사가 다루어 주려고 하면 수업의 깊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학습자의 욕구와 흥미를 고려하여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가려 중요한 내용만 깊이 있게 다루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다루거나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도록 과제를 주거나 확인 받도록 하는 등 학습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며 이때에는 교사가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어느 때 보다도 교사의 창의성과 융통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열성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했던 바람직한 교과서와 집필상의 유의점 등이 내용의 재구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간추리면 교육 과정 중심 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개발한 이번 제6차 교육 과정이 시행되는 때에 사용하게 될 교과서는 교육의 절대적인 존재로서 교과서를 가르치기 보다는 교육 자료 중의 하나로서 교과서로 학습시키는 입장임을 생각하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교육 현장 어디에나 교사와 학생과 교육 내용의 3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원천은 교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고안하고 준비하고 활용하면서 교사들은 체험을 중시하는 적용 중심의 학습, 개별

학습과 자율 학습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때 기본 자료로서 교과서를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계속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학생들의 마음에 귀기울이면서, 어른들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교사인 우리는 얼마나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 열성을 쏟고 있습니까?

참 고 문 헌

- 교육부, 중학교 교육 과정, 1992
- 교육부, 중학교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1992
- 이기훈, 중학교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연구, 1993
- 교육부, 중학교 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 기준, 1993
- 이도희, 좋은 교과서란 어떤 것인가? 교과서 연구 제15호, 한국 2종 교과서 협회 1993. 4
- 이용숙, 교과서는 이렇게 활용해야 한다. 교과서 연구 제17호, 한국 2종 교과서협회, 1993. 12
- 함수근,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교과서 연구 제16호, 한국 2종 교과서협회 1993. 8
- 교육부,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요령, 1993
- 교육부, 중학교 가정과 교육 과정 해설서, 1994
- 임공희, 현장 교육에 알맞은 교사용 지도서 편찬, 교과서 연구 제18호, 한국 2종 교과서 협회 1994. 4